

‘조국 의혹’ 난타전...“정치공세” vs “자진사퇴”

민주당 “가족 신상털기 그만”

한국당 “스스로 검찰로 가야”

정의·평화당도 비판 움직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일 조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상털기식 정쟁을 중단하라며 방어를 나서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자질·능력 검증에 위한 인사청문회 취지와는 달리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이 인사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완전히 타락시켰다”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가족청문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자질 검증은 뒷전이고 검증 대상도 아닌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와 사생활 침해에만 혈안이 돼 있는데 그야말로 파렴치한 정치공세”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을 점검한 결과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고 조 후보자 엄호에 더욱 주력하는 모습이다. 법사위 간사인 송기현 의원은 회의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어제와 오늘 아침 모임을 하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가짜 수준의 근거 없는 모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및 일가에 제기된 의혹들을 부각하며 조 후보자 자진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연석회의에서 “어린이에게 주식,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것을 동물의 왕국에 비유했던

그가 자녀를 동원해 의혹 덩어리인 사모펀드 투기에 나섰다”며 “사퇴는 물론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조 후보자와 일가를 겨냥해 “이분들에게 국가와 국민은 농락·갈취의 대상이 아니었느냐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는) 이제라도 사퇴하고 대통령도 이쯤 되면 지명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외국어고 재학 당시 논문 1저자 등재 등이 집중 거론됐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 불가론’을 거듭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를 ‘세계챔피언급 내로남불리’로 규정하면서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저질스러운 추문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팔려 나온다”며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친여 성향의 야당들도 비판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정치

연대 등도 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들을 검증, 격적성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덕성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요구받고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후보자가 해명할 사안이 있으면 국민께 해명해야 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밝힘으로써 후보자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청와대가 사전 검증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에 대해 나오는 이슈가 검증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검증은 검증대로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日자민당 2인자와 5시간 회담

문화상 의장 특사 자격 방문

“8·15경축사 내용 긍정적 평가”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박지원 의원은 문화상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해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을 만났다고 20일 밝혔다. 니카이 간사장은 일본 여당인 자민당 내 2인자로 불린다.

지난 1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박 의원은 이날 귀국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을 방문해 오사카(大阪)에서 니카이 간사장과 하야시 모토오(林幹雄) 간사장 대리, 고이즈미 류지(小泉龍司) 중의원과 19일 오후 4시부터 공식·비공식, 공식·사적 이야기를 하면서 5시간 45분 간 실질적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방일에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도 동행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비롯한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 언급을 삼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니카이 간사장과는 호형호제하는 관계여서 가족처럼 모든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제가 대통령에게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니카이 간사장 역시 당 사람이기에 실질적으로 무슨 합의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번 만남에서 니카이 간사장도 8·15 경축사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니카이 간사장이 경축사에 대해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제가 볼 땐 일본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이 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나 청와대에서 공식 요청하면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자세히 보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청와대 “지소미아 연장 여부

일의 태도 등 종합 검토 결정”

청와대는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일본에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차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24일로, 정부는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분위 등을 보고 연장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 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3대 반도체 핵심소재 가운데 포토레지스트(PR)의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제한 품목) 공급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다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만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0일 오후 열린 국회 제14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왼쪽)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의 발언에 회의진행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말 종료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개혁안 ‘평행선’

“8월말 의결” “강행처리 안돼”

이달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는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만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정개특위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상태다. 하지만 정개특위의 관련 논의는 멈춰선 상태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공조한 여야 4당은 이날 회의에서 ‘8월 말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주장했고,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정치 괴물제도’라고 몰아붙이며 반대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선거법 개혁은 단순히 내년 선거에 임하는 국회의원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정치개혁의 방아쇠”라며 “이를 당기지 않고는 정치개혁을 못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정개특위의 소임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여야 4당 안을 중심으로 정개특위 전체회의 차원에서 바로 논의해서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개

특위 1소위원장을 우리 당에 넘겨주는 1차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날치기로 처리한다면 나머지 국회 일정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감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간사들과 협의해보겠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여야의 합의를 압박했다.

회의 직후 홍 위원장과 김종민·김성식 의원은 국회에서 10분가량 간사 협의를 이어갔다. 장제원 의원은 개인 일정으로 협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손학규 “빅텐트로 총선 새판 짜겠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해 새로운 정치, 제3의 길을 수행하기 위한 새판 짜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손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손학규 선언’을 발표했다.

손대표는 “정당 간 연합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책적 연속성을 보장받는 독일식 연합정치 체도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고 마지막 남은 정치적 욕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제3당을 굳건히 지켜 다당제를 유지해 연합정치의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그만 싸우고 화합하자. 저

부터 당내 통합에 앞장서고, 제가 직접 나서 안철수·유승민을 끌어들이겠다”고 자신했다.

손대표는 “이제 총선을 준비하겠다.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인재개발위원회를 가동하겠다”며 “특히 청년과 여성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겠다”고 밝혀 비당권파의 퇴진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당 내외의 반응은 냉랭했다. 당 내에서는 즉각 비판이 나왔다.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지금 있는 당도 수습하지 못하는 붕괴된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한국정치 개혁과 야권재편을 주도하고 총선을 치러낼 수 있다는 건가”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운지

송갑석 의원 광주시청·서구청 국비확보 잇단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사진)은 19·20일 광주시청과 서구청에서 잇따라 국비확보 간담회를 열고, 역대 최대인 2조6200억원 규모의 2020년 광주시 국비확보에 나섰다. 국회 예결위원인 송 의원이 후반기 예산안조 정소위원으로 예상돼 이 지역 국비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2019년 광주시 국비 2조원 대를 개척한데 이어 2020년에도 역대 최대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사·구청 상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광주를 대표하는 여당의원으로서

광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 광주시청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광주형일자리를 비롯해 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광주 주력산업 발전 등 2020년 국비지원 및 현안건의사업 30건을 포함해 생활SOC, 교통, 문화 등 지역주민의 시급한 요구가 담긴 각 분야별 주요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가치높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가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높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56%)8억1천4백만원**
- 숙박시설**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토지 : 2042.2㎡(617.8평) 건물 : 2735.49㎡(827.5평)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 : 24억4천5백8십만원 최저가 : (36%) 8억7천6백6십만원**
- 근린시설** 광주 서구 광천동 650-193 외2필지 토지 : 1747㎡(528.5평) 건물 : 3169.12㎡(958.78평) 지하1층 지상7층 **감정가 : 40억6천2백5십만원 최저가 : (70%) 28억4천4백만원**
- 공장** 곡성군 삼기면 경악리 토지 : 88181㎡(26674.8평), 건물 : 15264.64㎡(4617.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124억3천8백7십만원 최저가 : (29%) 35억6천6백5십만원**
- 창고** 광주 남구 서동 토지 : 396㎡(119.8평) 건물 : 239.15㎡(72.3평) **감정가 : 5억8백7십만원 최저가 : (70%) 3억5천6백만원**
- 다가구(빌라)** 광주 북구 풍향동 767번지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지하1층 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6억7천7백만원**
- 아파트** 광주 동구 학동 삼익세라믹 63평형 **감정가 : 2억8천6백만원 최저가 : 2억8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